http://dx.doi.org/10.5392/JKCA.2016.16.10.235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Medi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between Family Stress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Women's Social Worker in Middle Age

송유미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o-Mee Song(songyoume@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중년기가 가족생활주기상의 적응, 재정립 등의 탄력성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상당수 차지하는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표집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 328명이었으며,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논의점 및 결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경제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을 뒷받침하여 합리적인 보수결정에 대한 시스템 마련을 제언하였다. 둘째,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 신념체계, 조직유형 모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과정이 가장 강력하게 매개효과가 있음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교환을 의사소통의 필수조건으로 하여 개방된 감정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스트레스를 정확히 분석하여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과 같은 가족탄력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 중심어 : |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 | 가족스트레스 | 가족탄력성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the family resilience between the family stress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women social worker and welfare specialist, considering that women's middle age needs the resilience including the adaptation, reestablishment in the family life cycle.

The sampling target was the 328 women social workers in the middle age, and it performed the Sobel Test for the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after enforc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ext, it is same. Firstly, the economic problem was most highly severe among the family stress subfactor. Secondly, there was altogether the part mediation effect of the family resilience' subfactors, ie, communication processes, belief systems and organizational patterns between the family stress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conclusion, if the family stress which the middle aged women social worker confronted was accurately analyzed and the family is intervened so that the family resilience functions properly, th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would be able to be improved.

■ keyword : | Women's Social Worker in Middle Age | Family Stress | Family Resilience | Social Problem Solving |

접수일자 : 2016년 09월 07일
수정일자 : 2016년 10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0월 02일
교신저자 : 송유미, e-mail : songyoume@hanmail.net

I. 서 론

중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실질적인 노화가 진행되며, 특히 여성의 폐경이나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생활주기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가족관계 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매우 커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중년기의 복잡한 가족관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케 하고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악화, 가족 간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악화시키고 그 기능을 저하시킨다[1]. 따라서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는 비단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성 및 건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분야는 중년기 여성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2]. 올 해 아시아투데이·잡코리아의 공동조사(2016)에 따르면[3] 중년 여성이 재취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가 28.2%, 보육교사가 19.2%, 방과후지도사가 17.1% 순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년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개입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회복을 꾀하는 등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4].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회복지사 본인의 감정과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활용하는 감성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감정표현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도구로 활용되고, 그들의 감정 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5], 더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감정부조화와 감정의 소진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다시 자신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도록 만들거나 자신의 서비스 수행능력의 한계를 느끼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로서 갖고 있는 직업적 사명과 개인적인 철학마저 잃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6].

그런데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 상당수가 중년기 여성의 특성에 따른 자신의 건강 및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간과 능력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일과 가족 양립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족스트레스가 크다[7]. 이것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내적·정신적 조화를 유지하는 데 어렵게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실패로 이어지게 할 수 있고, 결국,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는 사회복지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차원에서 휴먼서비스의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년기 가족에서 또한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가족탄력성이다[8].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특성을 갖는 능력으로써,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적응과 회복이라는 해결 및 건강성에 초점을 두는 강점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5]. 이를 근거로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많이 존재하는 중년기 개인 및 가족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한 특성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응과 회복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5].

또, 중년기에 대한 가족관련 이슈 뿐 아니라 그 밖의 일상적·사회적 이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년기는 여러 모임의 구성원, 직장동료, 친지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직무수행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중년기에는 이 시기의 특성상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가족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껏 국내의 중년기에 대한 문헌들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인차원을 벗어난 부부중심에서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9-12]. 여기에 더하여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대부분이 중년기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중년기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차원으로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더하여 중년기는 발달과업에 따라 적응, 재정립 등의 탄력성이 필요한 시기로 중년기를 문제 상황에 개입하여 변화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8].

특히, 사회복지직은 일반 직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과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활용해야 하는 감성노동을 수행하는[5]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중년기 직장 여성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중년기 여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2]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과 개인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사회복지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가족스트레스 결과 좌절과 시련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감성노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중년기는 자녀양육, 노부모와의 관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다른 생애주기보다 스트레스가 많다. 신혜섭(2006), 김명자(1991)는 중년기 가족스트레스는 가족 및 대인관계, 재정문제, 건강, 자녀의 진로문제, 직장문제, 사망의 문제 등 중년기 발달단계상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13][14].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중년기 가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숙(1989), 최연실(1996)은 중년기는 청소년 자녀와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5][16]. 이평숙(1984), Boss(1988)에 따르면 이러한 생활사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더 크다고 하였다[11][17]. 여기에 중년기 여성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일과 가족을 병행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 직장 여성 특히, 중년기 사회복지사에 대해 송유미 등(2013)은 양적 업무과다, 근무시간의 경직성 등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에 따라 일-가족갈등에 따른 부담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7].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년기 여성 특히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감성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족탄력성은 개인탄력성 이론이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껏 국내의 가족탄력성에 대한 국내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장애아동[18-20], 청소년[21], 만성질환아동[22], 한부모가족[23][24]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그들의 가족스트레스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차원에서 휴먼서비스의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가족탄력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25].

한편, 박지현·김태현(2011)은 자신의 사회적·일상적인 스트레스 및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

고 있으며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1]. 사회복지사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복지사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때, 그가 속한 가족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26].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문제해결능력을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족과 클라이언트와 연관 지어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반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40-50대의 중년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차원에서 벗어난 가족차원의 연구라 하더라도 부부관계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27], 중년기의 정체성, 자존감, 생활만족도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9][15][28-33].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 종사자의 수가 남성 종사자의 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년기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과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녀 독립이 시작되는 40세 경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는 60세 이전까지로 보고 있다.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인생의 유한성에 따라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직업 측면에서의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8][14].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은 서구사회와는 달리 자녀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집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여전히 자녀 양육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동시에 노부모와의 관계도 긴밀하여 여러 역할의 동시수행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년기 가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8].

중년기는 자녀의 진로문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불화나 성생활 불만,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부모나 기타 가족원의 질병 등의 생활사건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되는 시기이다. 최동숙(1989)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중년기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최연실(1996)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지나친 감정적 유대가 심리적 긴장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15][16]. 이 같은 생활사건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13][34-36]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부부가 경험한 경우에도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로서 경제적 안정감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3]. 김명자(1989)의 연구에서는 도시 주부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곤란수준과 중년기 위기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 남정자 등(1996)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곤란이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들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일·가족 갈등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8].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도 일반 직종의 여성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일에서의 직무요구와 가정에서의 역할요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발생된다[7]. 이는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3],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등[39] 경력단절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40][41].

한편, 유상미(2008)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와[42] 엄태완·이기영(2004)의 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을 가진 개인은 비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적 고통을 적게 받는다는 연구결과를[43] 종합해 볼 때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스트레스 역시 높을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년기 여성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족스트레스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회적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양산,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저하, 더 나아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 국민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8].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가족스트레스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부족하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생활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관리가 사회복지사 자신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사회복지사 직무수행을 돕고, 그 능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의 발전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가족탄력성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써,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역기능 상태에서 다시금 기능적으로 돌아오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탄력성은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능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역동적 과정이며,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좋은 성과, 스트레스 하에서도 유지되는 능력,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1] 재인용).

Walsh(1998)는 탄력적인 가족에 대해 헌신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며, 응집력이 있고([44] 재인용), 적응적이며, 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영적이며, 연결되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 탄력성에 대해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구조·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강점관점에 따라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보다는 이에 대한 적응과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말할 수 있다[8]. 그래서 가족탄력성은 인생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가족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대처,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0].

가족탄력성은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자들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들이 다르다. Silliman(1994)은 탄력성의 요소로 위임,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시간공유, 효능성 등을 제시하였고[45], Barnard(1994)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적합성,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청소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아동과 생산적인 관계 등으로 보고하였다[36]. Cowen과 Hetherington은 가족기능에 관한 조사에서 가족탄력성의 기본 요소로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신념체계를 제시하였다([22] 재인용).

한편 Walsh(1998)는 가족탄력성에 대해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면서 요인들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동적 실체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44].

국내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탄력성의 개념 또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 중 남기민·이정은(2012)은 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족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보였다고 했다[46]. 이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탄력성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연구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

복지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 가족의 역동적인 과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Walsh의 세 가지 가족탄력성 요인즉,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44]. 신념체계는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족통제감, 가족강점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조직유형은 가족의 위기와 역경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가족의 구조화로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활용도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관계 내에서의 정보교환으로써 의사소통의 명확성, 개방된 감정표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로 구성된다.

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수많은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에 이를 평가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술을 통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과 이를 통해 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8].

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잠재요인이다. 자신의 자원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지각할 경우, 문제해결력의 상실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47]. 즉, 높은 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문제해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가족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8].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탄력성이 낮으면 그 행동을 회피하게 되나,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적대감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부적응적 상호작용을 맺게 되며, 이는 다시 환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48].

사회복지의 실천영역에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실천관계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태도와 감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며, 사회복지사와 그와 관련된 다른 체계 사이의 정서적 유대로서,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적 맥락을 확인하여야 그 상호작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비어스텍(Biestek)은 케이스워크에서의 관계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감정과 태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환경간의 좀 더 나은 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정의하고 있다[49].

결국,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 관계라는 것이다. 전문적 관계는 언제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전문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로 인한 사회문제해결능력 부족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감정을 낳게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50].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 모형에 대해 Dixon 등(1979), D'Zurilla & Goldreid(1971), D'Zurilla & Nezu(1982) 등은 이상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 따른 단계별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을 제시하였다[12][51][52]. 그들은 성공적인 문제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크게 문제해결지향과 문제해결 기술로 분류하였다[1][53].

'문제해결지향'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동기적 요소로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대처형태의 지속적인 학습 결과가 내면화되어 형성된다. 초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문제지향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인지적 반응은 문제에 대한 감수성,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 그리고 문제에 대한 사전 경험 등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용으로써 문제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지적 과정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 지향 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개인적 특성은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등의 인지적 반응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우울이나 불안의 정도가 달라지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결국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적극성을 갖게 되는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54].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수용과 배타, 긍정과 부정, 자신감과 불안감, 적극과 소극 등과 같은 인지·정서·행동적 문제지향성은 문제해결 능력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기술'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문제해결기술을 포함한다. 첫 번째 기술인 문제규정과 구성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비교하고, 문제 상황을 구조적으로 나열해 봄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둘째, 대안적 해결책의 산출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조화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을 말한다. 셋째, 의사결정은 산출된 여러 대안들을 그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넷째는 해결책 수행과 확인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여 수행해 본 후 그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즉, 문제해결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기술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대안을 생각해 내어 그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수행한 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과정이 문제해결능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5. 중년기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할 경우 적대감 등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동료들과 부적응적 상호작용을 맺는 등 비사회화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참여의 부족과 철회를 가져오게 되고[43],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1][48]. 이것은 다시 환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휴먼서비스를 기획·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인 클라이언트는 기업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자에 비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대상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며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감정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복지서비스 종사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정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를 지니게 되며 본인의 감정과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활용하는 감성노동을 수행하게 된다[5].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여성 종사자의 수가 남성 종사자의 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9월말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회복지사는 총62만 9,254명으로 여성이 전체 73.7%(46만 3,769명)로 압도적으로 많고[55], 사회복지 관련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총4만 8,700여명으로 그 중 여성 비율이 70.8%에 달한다[10].

결과적으로 여성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1][42][43]. 박경

(2004)은 자살사고에 대해 청소년의 부정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고 보고하였으며[56], 유상미(2008)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을 가진 개인은 비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적 고통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써, 스트레스가 높으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탄력성과 연관이 있다. 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36][57].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은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능했음을 유은애(2008)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58]. 송영경(2006)은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59],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또, 유은애(2008)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8][60].

이처럼 탄력성은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완화시켜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지현(2009)은 이를 가족탄력성에 대입시켜 가족탄력성이 높을 경우 문제상황에 대하여 더욱 적응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성 및 융통성이 뛰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또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8].

특히,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가족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스스로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와의 상호관계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클라이언트 자신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바탕으로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통해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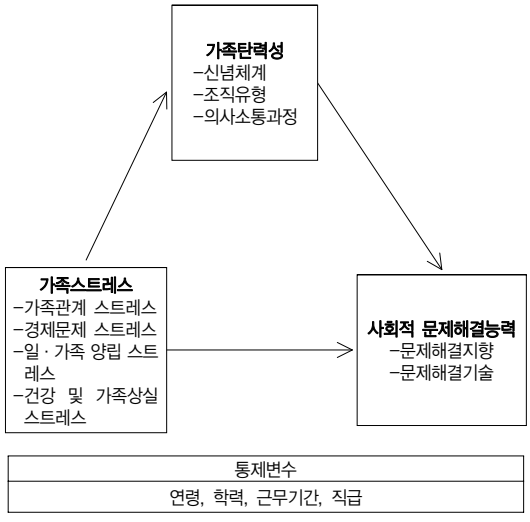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 활용 될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6년 3월 2일-10 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40세 이상 - 59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년기의 생물학적 연령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및 연구자들이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1].

본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유의표집방식에 따른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먼저 대구, 경북지역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 4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하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과 함께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부의 경우 컴퓨터 파일로 전송하고 회신하는 형태로 수집되었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350부였고 이 중 회수되어진 설문지는 337부로써 96.2%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응답을 다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328부이다.

3. 측정도구

3.1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McCubbin 등(1982)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의 71문항 척도를 김안자(2005)가 선별하고[23] 박지현(2009)이 정리하여 개발한 척도를[8]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스트레스의 요인들은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양적 업무과다에 비해 적은 보수[61], 감성노동이라는 직무적 특성에 따라 일-가족 갈등문제로 인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적 어려움[20], 사회복지사 중 중년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건강 및 가족상실감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20]. 즉, 가족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족관계 8문항(Cronbach's α = .74), 경제문제 4문항(Cronbach's α = .79), '일·가족 양립문제' 4문항(Cronbach's α = .73), 건강 및 가족상실감 2문항(Cronbach's α = .72)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의 가족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는 .70 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3.2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 척도는 선행연구 및 Walsh(199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김미옥(2001)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18] 바탕으로 박지현(2009)이 정리하여 개발한 척도를[8]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의 요인들은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서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하위요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온 바,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가족탄력성을 강점관점과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두는 과정을 반영하였다. 즉, 신념체계의 경우 가족통제감(Cronbach's α = .67)과 가족강점(Cronbach's α = .63)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65로 나타났다. 조직유형(Cronbach's α = .64)은 역할안정성(Cronbach's α = .65), 가족응집력(Cronbach's α = .67), 가족자원 활용도(Cronbach's α = .69)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과정(Cronbach's α = .68)은 의사소통의 명확화(Cronbach's α = .70), 개방된 감정표현(Cronbach's α = .71),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Cronbach's α = .72)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은 .7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3.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Zurilla와 Nezu(1990)은 SPSI(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사용하였다[52]. 기존의 SPSI는 총 70문항으로 2개의 주요척도와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하위척도는 10문항씩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소라(1998)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척도를 바탕으로[62] 박지현(2009)이 정리하여 개발한 척도를[8]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요인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사전에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자신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을 문제해결능력지향과 문제해결 기술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신뢰도는 .71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문제해결기술지향 .73, 문제해결기술 Cronbach's .72로 각각 다소 높게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for windows ver 20.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스트레스, 사회문제해결능력,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Kenny 등(1998)이 제안한 단계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63][64].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n=328)

변수		빈도(백분율)
연령	40대	177(53.9)
	50대	151(46.1)
학력	2년제대학졸업	63(19.2)
	4년제대학졸업	222(67.6)
	대학원졸업	43(13.2)
근무기간	5년이하	23(7.1)
	6-10년	75(22.8)
	11-15년	123(37.5)
	16년이상	107(32.6)
직급	사회복지사(실무자)	169(51.5)
	팀장급	102(31.1)
	과장급	36(10.9)
	부장급 이상	21(6.5)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최종 분석대상은 328명이며, 연령은 40대가 177명(53.9%)이며, 50대가 151명(46.1%)로 나타났다. 학력은 2년제 대학 졸업이 63명(19.2%), 4년제 대학 졸업이 222명(67.6%)이고, 대학원 졸업은 43명(13.2%)로 나타나 대부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1-15년 사이가 123명(37.5%), 16년 이상이 107명(32.6%), 6-10년은 75명(22.8%), 5년이하는 23명(7.1%)으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 많았다. 직급은 사회복지사가 169명(51.5%), 팀장급이 102명(31.1%), 과장급이 36명(10.9%), 그 이상이 21명(6.5%)으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2. 주요 변수의 특성

2.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는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고 이들 변수에 대한 응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개념		평균	표준편차
가족 스트레스	가족 관계	3.89	1.48
	경제 문제	4.12	2.36
	일 · 가족 양립	3.02	1.25
	건강 및 가족상실	3.68	1.36
가족 탄력성	신념체계	3.14	1.31
	조직유형	3.01	1.24
	의사소통과정	3.21	1.29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 지향	3.06	1.27
	문제해결 기술	3.21	1.31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주요변수의 특성에 있어서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4.12로 가장 높았고,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3.89,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가 3.68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는 3.0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과정이 3.21로 가장

높았고, 신념체계가 3.14, 조직유형은 3.01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기술이 3.21, 문제해결 지향이 3.06로 각각 나타나, 문제해결기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2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가족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가족스트레스	-		
가족탄력성	-.39**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44**	.24**	-

*p<.05, **p<.01, p<.001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9, **p<.01),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4, **p<.0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4, **p<.01). 결국,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가족탄력성은 낮아질 수 있고, 반면에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Kenny(1998) 등이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따라 독립변수인 가족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가족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을 각각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력, 근무기간, 직급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명목척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계수가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신념체계의 매개효과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신념체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족스트레스가 신념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가족스트레스가 신념체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88, p<.001)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 F값은 237.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1) 설명력은 21.5%(Adjusted R2=.215)로 나타났다.

표 4. 가족스트레스가 신념체계에 미치는 영향

신념체계		*B*	*S.E*	*β*	VIF
통제변수	상수	8.621	.246		
	연령	-2.193	.171	-.174***	1.011(.989)
	학력	1.768	.173	.140***	1.040(.961)
	근무기간	.887	.259	.050**	1.177(.850)
	직급	-.191	.250	.011	1.178(.849)
독립변수	가족스트레스	-.626	.022	-.388***	1.053(.950)
R2	.216				
adj *R2*	.215				
F	237.025***				
dummy variable : 1) 학력 2년제대학졸업=0, 4년제대학 졸업이상=1 2) 직급 실무자=0, 중간관리자이상=1					

*p<.05, **p<.01, p<.001

다음으로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가족스트레스와 신념체계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30, p<.001)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표 5. 신념체계 매개효과

사회적문제해결능력		가족스트레스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가족스트레스, 신념체계 →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B	*S.E*	*β*	VIF (공차)	*B*	*S.E*	*β*	VIF (공차)
통제 변수	상수	69.088	.558			73.177	.619		
	연령	−.340	.238	−.020	1.011 (.989)	−.435	.233	−.026	1.049 (.953)
	학력	−1.406	.242	−.084**	1.040 (.961)	−1.135	.237	−.068***	1.065 (.939)
	근무기간	−1.281	.362	−.054**	1.177 (.850)	−1.281	.354	−.054**	1.180 (.847)
	직급	1.108	.349	.049 **	1.178 (.849)	.885	.342	.039*	1.178 (.849)
독립 변수	가족 스트레스	−.709	.031	−.330	1.053 (.950)	−.563	.032	−.262**	1.176 (.850)
매개 변수	신념체계					.474	.034	.207***	1.145 (.873)
R2		.140				.177			
adj *R2*		.139				.176			
F		140.032***				154.707***			
dummy variable : 1) 학력 2년제대학졸업=0, 4년제대학 졸업이상=1 2) 직급 실무자=0, 중간관리자이상=1									

13.9%(Adjusted R2=.139)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신념체계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신념체계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7, p<.001). 즉, 신념체계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62, p<.001).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념체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념체계가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7.6%(Adjusted R2=.176)로 나타났다.

3.2 조직유형의 매개효과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조직유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족스트레스가 조직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가족스트레스가 조직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28, p<.001)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 F값은 125.2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1) 설명력은 12.6%(Adjusted R2=.126)로 나타났다.

표 6. 가족스트레스가 조직유형에 미치는 영향

조직유형		*B*	*S.E*	*β*	VIF (공차)
통제 변수	상수	8.512	.312		
	연령	−.200	.246	−.027	1.011 (.989)
	학력	.571	.105	078***	1.040 (.961)
	근무 기간	−.8.626E−005	.106	.000	1.177 (.850)
	직급	−.470	.159	−.047**	1.178 (.849)
독립 변수	가족스트레스	−.308	.014	−.328***	1.053 (.950)
R2		.127			
adj *R2*		.126			
F		125.204***			
dummy variable : 1) 학력 2년제대학졸업=0, 4년제대학 졸업이상=1, 2) 직급 실무자=0, 중간관리자이상=1					

다음으로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가족스트레스와 조직유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표 7. 조직유형의 매개효과

사회적문제 해결능력		가족스트레스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가족스트레스, 조직유형 →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B	*S.E*	*β*	VIF(공차)	*B*	*S.E*	*β*	VIF(공차)
통제변수	상수	69.088	.558			71.112	.534		
	연령	−.340	.238	−.020	.989(1.011)	−.922	.239	−.055***	1.049(.953)
	학력	−1.406	.242	−.084**	.961(1.040)	−.936	.240	−.056***	1.065(.939)
	근무기간	−1.281	.362	−.054**	850(1.177)	−1.045	.355	−.044**	1.180(.847)
	직급	1.108	.349	.049**	.849(1.178)	1.057	.343	.046**	1.178(.849)
독립변수	가족스트레스	−.709	.031	−.330***	950(1.053)	−.542	.033	−.252**	1.245(.803)
매개변수	조직유형					.266	.021	.200**	1.275(.784)
R2		.140				.171			
adj *R2*		.139				.170			
F		140.032***				148.111***			
dummy variable : 1) 학력 2년제대학졸업=0, 4년제대학 졸업이상=1 2) 직급 실무자=0, 중간관리자이상=1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30, p<.001)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13.9%(Adjusted R2=.139)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조직유형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조직유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0, p<.001). 즉, 조직유형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52, p<.001).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유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유형이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며, 모델의 설명력은 17.0%(Adjusted R2=.170)로 나타났다.

3.3 의사소통과정의 매개효과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의사소통과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족스트레스가 의사소통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가족스트레스가 의사소통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91, p<.001)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가족탄력성의 의사소통 과정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 F값은 243.0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1) 설명력은 30.7% (Adjusted R2=.307)로 나타났다.

표 8. 가족스트레스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의사 소통과정		*B*	*S.E*	*β*	VIF (공차)
통제 변수	상수	8.321	.301		
	연령	−2.021	.172	−.176***	1.011 (.989)
	학력	1.771	.175	.143***	1.040 (.961)
	근무기간	.891	.261	.052**	1.177 (.850)
	직급	−.171	.252	.012	1.178 (.849)
독립 변수	가족 스트레스	−.646	.024	−.391***	1.053 (.950)
R2		.308			
adj *R2*		.307			
F		243.033***			
dummy variable : 1) 학력 2년제대학졸업=0, 4년제대학 졸업이상=1 2) 직급 실무자=0, 중간관리자이상=1					

다음으로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가족스트레스와 의사소통과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30, p<.001)*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표 9. 의사소통과정의 매개효과

사회적문제해결능력		가족스트레스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가족스트레스, 의사소통과정 →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B	*S.E*	*β*	VIF (공차)	*B*	*S.E*	*β*	VIF (공차)
통제 변수	상수	69.088	.558			71.014	.604		
	연령	−.340	.238	−.020	1.011(.989)	−.441	.232	−.027	1.049(.953)
	학력	−1.406	.242	−.084**	1.040(.961)	−1.137	.238	−.070***	1.065(.939)
	근무기간	−1.281	.362	−.054**	1.177(.850)	−1.291	.356	−.060**	1.180(.847)
	직급	1.108	.349	.049**	1.178(.849)	.888	.343	.039*	1.178(.849)
독립 변수	가족 스트레스	−.709	.031	−.330***	1.053(.950)	−.564	.034	−.263**	1.176(.850)
매개 변수	의사소통과정					.477	.035	.209***	1.145(.873)
R2		.140				.179			
adj *R2*		.139				.178			
F		140.032***				154.711***			
dummy variable : 1) 학력 2년제대학졸업=0, 4년제대학 졸업이상=1 2) 직급 실무자=0, 중간관리자이상=1									

13.9%(Adjusted R^2=.139)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의사소통과정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의사소통과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9, p<.001). 즉, 의사소통과정이 원활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63, p<.001). 가족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과정이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7.8%(Adjusted R^2=.178)로 나타났다.

4. 매개효과 검증

회귀분석 결과, 가족스트레스가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12]를 실시하였다.

$$Z_{ab} = \frac{ab}{\sqrt{b^2SE_a^2 + a^2SE_b^2}}$$

위 식에서 a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이고, b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이다. SE_a는 a의 표준오차이고, SE_b는 b의 표준오차이다. Sobel Test의 결과값이 절대값 1.96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Sobel Test의 검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Z
신념체계	가족스트레스→신념체계	−.626	.022	−11.77***
	신념체계→사회적 문제해결능력	.474	.034	
조직유형	가족스트레스→조직유형	−.308	.014	−11.57***
	조직유형→사회적 문제해결능력	.266	.021	
의사소통과정	가족스트레스→의사소통과정	−.646	.024	−11.80***
	의사소통과정→사회적 문제해결능력	.477	.035	

*p<.05, **p<.01, ***p<.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가 가족생활주기상의 적응, 재정립 등의 탄력성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상당수 차지하는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표집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 328명이었으며,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논의 및 제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수준에서 가족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다소 높았다. 요인별로 살펴봤을 때 경제문제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 순으로 중간값(3점) 이상의 수준이었다. 가족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일·가족양립 문제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김명자(1991), 남정자 외(1996), 신혜섭(2006), 박지현(2009)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들 연구들은 일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8][13][14][37].

경제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중년기 사회복지사는 일반 중년기와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주기상 직업생활에서 일에 대한 인지적 의사결정능력이 증가한다. 또 높은 지위와 수입을 확보하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일 수 있으나 자녀교육, 부모나 기타 가족원의 질병 등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경제적 압력이 커 경제적 안정감이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전체 산업 대비 62.7%에 불과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의 자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보수체계의 열악함 또한 뒷받침한다([34] 재인용).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적정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계의 전반적 의견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었다[61]. 고용노동부(2012)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월평균임금은 2007년 약 163만 원으로 전체 산업평균 대비 63.7%였는데, 2011년에는 157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체 산업평균 대비 역시 55.3%로 더욱 하락했다[65]. 이는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월평균임금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업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도 2011년에는 절대적 수준까지 떨어져 상대적 수준은 더욱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61]. 결국, 사회복지사의 월평균급여는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금액은 표준생계비 대비 사회복지사의 임금 비중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그 보수수준은 표준생계비 대비 현저하게 미달하는 수준에서 있다[31][66].

공무원보수는 거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오르지만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예산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상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26]. 매년 공무원의 보수와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보수결정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정적인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 시설의 급여 수준이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의 90~95%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성,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탄력성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 신념체계, 조직유형 순으로 모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 가족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면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탄력성 세 가지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 신념체계, 조직유형이 가족이 직면하는 위기상황과 변화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입증된 김안자(2005), 박지현(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8][23]. 그러나 신념체계가 가장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박지현(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22]. 또,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에 있어 가족탄력성 하위요인

중 가족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이 높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안연선 등(2010), 황동섭(2013) 등의 연구결과[67], 또 한 부모 가족의 부부 적응 및 가족적응 관계에서 가족탄력성 요인 중 조직유형이 높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유용식(2007)의 연구결과와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3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 결과가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에 의사소통과정이 가장 강력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 간에 혼란을 주지 않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교환을 의사소통의 필수조건으로 하여 자연스럽고 감정과 욕구,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려 깊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개방된 감정표현을 통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29]. 박지현(2009)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7]. 부부관계가 원만할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성, 개방성, 협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개방적 감정표현이 높고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할수록 서로 간에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노출시킬 수 있으며, 문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상호 간 효과적인 협력과 일치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요인 중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상 사회복지직 종사자 전체에 대해 시설의 종사자 규모와 경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비교직급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내재적 한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결정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59].

둘째, 의사소통과정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부관계가 원만할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성, 개방성, 협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개방적 감정표현이 높고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할수록 서로 간에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노출시킬 수 있으며, 문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상호 간 효과적인 협력과 일치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바, 가족탄력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중년기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사 가족의 삶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더욱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가족 탄력성에 대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경제문제가 가족탄력성에 가장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었지만 가족관계, 일·가족양립, 건강 및 가족상실 또한 가족탄력성에 밀접하게 관련된 바,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의 탄력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족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각 하위영역별 가족관계의 측면을 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가 개인과 가족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탄력적인 가족 및 건강한 가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을 시행·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38].

다섯째, 중년기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자녀 독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으나, 최근 들어 만혼으로 인한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중년기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료된다.

여섯째,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 본 연구는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만의 능력이 아니라 가족차원의 능력이라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가족요인을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문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가족스트레스 결과 좌절과 시련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감성노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지역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28명이 응답한 설문지에 대해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하였고, Sobel Test로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높았다. 특히, 경제문제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중년기 여성들이 일-가족 양립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선행연구 문헌들과 비교되었다.

둘째,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탄력성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에서 매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사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결정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년기 여성 사회복지사의 가족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과정이 강조된 바, 명확성, 개방성, 협력성이 반영된 의사소통 훈련 필요하다. 셋째, 중년기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사 가족의 삶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더욱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각 하위영역별 가족관계의 측면을 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을 시행·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년기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섯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다양한 가족요인을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박지현, 김태현,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1호, pp.229-257, 2005.

[2] 정무성, 고이경, 김성미, 김선희, *서울시 사회복지 인력 근로조건 및 처우실태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07.

[3] 아시아투데이, 잡코리아의 공동조사, http://www.jobkorea.co.kr/Recruit/Co_Read/C/mt00

[4] 송유미, 전재일,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조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0권, 제3호, pp.291-311, 2004.

[5] 신중환, *사회복지의 가치·조직·동료 적합성이 사회복지사의 감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6] 신중환, 김정우, “사회복지사의 감성노동과 비과업행동의 관계에서 감정부조화의 매개효과와 감성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4호, pp.135-161, 2013.

[7] 송유미, 이선자, 이제상,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65권, 제4호, pp.317-340, 2013.

[8] 박지현,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 이경자, *중년기 부부갈등 치유를 위한 건강한 부부대화법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9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 http//www.welfare.net

[11] P. G. Boss, *Family stress managem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8.

[12] D. N. Dixon, P. P. Heppner, C. H. Peterson, and R. R. Ronning, "Problem-solving workshop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6, pp.133-139, 1979.

[13] 신혜섭, "중년기 위기와 가족 스트레스," 생활과학연구, Vol.11, pp.84-90, 2006.

[14]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15] 최동숙,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76, pp.165-179, 1989.

[16] 최연실, *청소년 자녀기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7]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18] 김미옥,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호, 2001.

[19] 김영주, *가족탄력성이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0] 조미경, "취학 전 장애아동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7권, 제1호, pp.325-326, 2011.

[21] 김현주, 이성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3호, pp.215-241, 2011.

[22] 이선애,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3] 김안자,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4] 김행섭, *여성한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성인애착과 가족탄력성 및 실존적 여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5] 유용식, *치매노인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6] 노재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무관리상의 문제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pp.149-183, 2016.

[27] 김정은, 성희자,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6권, 제1호, pp.187-213, 2013.

[28] 김은아,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9] 박금자,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30] 임효영,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1] 진명훈, *중년기 남성의 여가활동유형과 인구사회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2] 홍선경,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33] 황주연,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4] 서양열, “사회복지사 처우의 문제들,” 열린전북, 5통권 제162호, pp.15-18, 2013.

[35] 전병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수준 및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직렬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168-179, 2014.

[36] C. P. Barnard, ″Resiliency: A shift in our percep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herapy, Vol.22, pp.135-144, 1994.

[37]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 pp.96-29, 1996.

[38] 강정희, *가족친화적 기업복지제도의 제공 정도와 조직문화의 가족친화성이 기혼근로자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9] 김태홍, 고인아,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2001.

[40] 김지경,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3호, pp.91-104, 2002.

[41] 박주희, “취업주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취업주부의 역할만족도와 긴장도 및 역할 만족도와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3권, 제6호, pp.117-131, 2005.

[42] 유상미,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 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3] 엄태완, 이기영,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18, pp.5-35, 2004.

[44] F. Walsh, *가족과 레질리언스(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Second Edition)*(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서울: 나남출판, 1998.

[45] B. Silliman, *Rational for resilient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1994.

[46] 남기민, 이정은, “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57호, pp.85-112, 2012.

[47] D. A. Kenny, D. A. Kashy, and N. Bolger,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1, 4th ed. pp.233-265, Boston, MA:McGraw-Hill, 1998.

[48] E. Spotts, J. M. Neiderhiser, E. M. Hetherington, and D. Reiss, ″The relation between observational measures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familial anti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11, No.4, pp.351-374, 2001.

[49] 백은령, *사회복지실천론,* 대왕사, 2008.

[50] 정연자, *중년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위기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51] T. J. D'Zurilla and M. R. Goldreid, ″Problem-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78, pp.107-126, 1971.

[52] T. J. D'Zurilla and A. M. Nezu, Social problem-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53] 이영화, 임왕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서울소재 재가노인방 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414-429, 2011.

[54] 조예경, *자원봉사활동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정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5] 조혜정, "기독교 중년여성의 신앙성숙이 삶의 질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Vol.32, 2012.

[56] 박경,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의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2호, pp.265-283, 2004.

[57] J. Block and A. M. Ke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58] 유은애,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9] 송영경,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0] 이은희, *결혼이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61] 김제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수실태조사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5권, 제1호, pp.57-81, 2013.

[62] 박소라,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을 위한 문제 해결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3]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fman, G. West, and V. Sheets,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1, pp.83-117, 2002.

[64]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McCubbin, 1984.

[6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2012.

[66] 박상진, 윤연옥, 박미현, 위선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003.

[67] 황동섭,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저 자 소 개

송 유 미(Yoo-Mee Song) 정회원

- 1993년 2월 :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이학사)
- 1996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5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저출산, 가족치료, 여성복지, 가족복지 등